주간통일정세 2013-38(2013.09.16~09.22)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3-38

Contents

>> Ⅰ.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Ⅰ.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北 김정은-리설주 부부, 평양 역도대회 관람(9/16,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15일 평양에서 진행 중인 2013 아시안컵 및 아시아클럽 역도선수권대회를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온 나라에 체육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고 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더욱 높아지고 있는 속에 수도 평양에서 여러 나라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함.

北 청년·여성동맹 회의 잇달아…"김정은 과업 관철"(9/17, 조선중앙통신)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은 17일 평양에서 중앙위원회 제51차 전원회의를 열고 김 제1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선군절'에 발표한 담화의 과업을 토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전용남 위원장 등 청년동맹 간부들은 회의에서 김 제1위원장의 담화를 토대로 강성국가 건설에서 선봉대, 돌격대로 나설 것을 언급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함.

北 김정은, 평양 문수물놀이장 건설현장 시찰(9/18, 조선중앙방송)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완공을 앞둔 평양 문수물놀이장 건설장을 시찰하며 군인 건설자들의 노고를 위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8일 보도함.
-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상이 세워질 실내 물놀이장 중앙 홀, 상점, 체육실, 식당 등을 차례대로 둘러보고 '대만족'을 표시했다고 중앙방송이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당 창건 기념일(10월 10일)까지 세계적인 문수물놀이장을 건설해 인민들에게 안겨줄 수 있게 됐다"며 "우리 당의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 구상을 맨 앞장에서 받들어가는 인민군 군인들의 결사관철의 정신이 낳은 기적"이라고 평가함.

北 김정은, 일꾼·근로자들 편지에 '친필답장'(9/19, 조선중앙방송)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여러 단위의 일꾼들과 근로자, 학생들에게서 받은 편지에 '친필답장'을 보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9일 보도함.

– 이날 소개된 편지에 대한 답장은 지난 7월 24일 또는 8월 14일 자로 돼 있으며 김 제1위원장은 당의 경제강국 건설에 앞장서겠다며 충성을 맹세한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종업원들의 편지를 받고 "나는 남흥노동계급을 믿습니다"라고 적은 짧은 친필답장을 보냄.

北 추석 맞아 '열사릉' 방문 이어져(9/19,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노동신문)

– 북한에서는 19일 추석을 맞아 평양을 비롯한 각지의 열사릉과 열사묘에 각 계층의 방문이 이어졌는데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추석 분위기와 관련해 열사묘 참배 소식을 소개함.

–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추석을 맞아 평양 대성산혁명열사릉과 애국열사릉, 조국해방전쟁(6·25전쟁) 참전 열사묘, 만경대구역에 있는 김일성 주석의 조부모인 김보현·리보익과 부모인 김형직·강반석의 묘에 화환을 보냄.

北, 문화상에 박춘남 승진 임명(9/20,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최근 문화예술을 총괄하는 내각 문화상에 박춘남 문화성 부상을 승진 임명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평양대극장에서 새로 나온 노래 '조국찬가'에 대한 문예사상연구모임이 진행됐다고 전하면서 박춘남 문화상과 안동춘 문예총 중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고 밝힘.

北, 리설주 연관 추문 은폐 위해 9명 처형(9/21, 아사히(朝日)신문)

– 북한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와 관련된 추문을 은폐하기 위해 은하수관현악단과 왕재산예술단 단원 9명이 지난 8월 공개처형됐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1일 보도함.

– 최근 탈북한 북한 고위간부에 따르면 이들 9명은 자신들이 출연한 포르노를 제작했으며 북한 인민보안부가 이들의 이야기를 도청, '리설주도 전에는 자신들과 똑같이 놀았다'는 대화 내용을 확보해 전함.

– 신문은 김 제1위원장은 리설주와 관련된 추문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8월17일 9명을 체포한 후 재판 회부 없이 3일후 평양시 교외의 강건 군관학교 연병장에서 군과 당의 고위간부, 악단 관계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총살했다고 밝힘.

북한군 상장 고수일은 김정은 외삼촌…경호 맡아(9/22, 연합뉴스)

– 북한 인민군 상장(우리의 중장)인 고수일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외삼촌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22일 연합뉴스가 전함.

– 복수의 대북소식통은 "작년 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0회 생일을 맞아 제정된 '김정일 훈장'의 첫 수훈자 중 한 명인 고수일 상장은 김정은 제1

위원장의 생모인 고영희의 남동생"이라며 "고수일은 호위사령부 장성"이라고 밝힘.

○ **北, 김정은 조모 사망일 맞아 찬양 분위기 띄우기(9/22,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의 매체들은 22일 김정숙의 공적과 관련 일화들을 소개하는 기사를 잇달아 내보냄.

– 노동신문은 1면에 이어 2면과 6면의 상당 부분을 김정숙의 비범한 면모와 김일성 주석 호위와 항일운동, 민족 통일에 헌신한 업적, 인간적 매력 등을 칭송하는 기사를 실음.

■ **김정은동향**

- 9/16, 김정은·리설주 부부, 9.15 '2013 아시안컵 및 아시아클럽역도선수권대회' 4일차 63kg급·69kg급 경기 관람(9.16,중통·중방)
  - 박봉주, 최룡해, 장성택, 장정남, 김기남, 리영수 등 함께 관람
- 9/18, 김정은 黨 제1비서, 완공단계 문수물놀이장 건설장 시찰(9.18, 중·평방)
  - 리재일, 박태성, 마원춘 등 동행
- 9/18, 김정은 黨 제1비서,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 건설에 기여한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9.18,중·평방)
- 9/19, 김정은 黨 제1비서,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종업원들 등 여러 단위 일꾼들과 근로자들·교직원·학생들이 올린 편지에 '친필' 전달(9.19,중통·중방)

■ **기타 (대내 정치)**

- '2013 아시안컵 및 아시아 클럽역도선수권대회' 폐막식, 9.17 김용진(내각 부총리)·차희림(평양시 인민위원장)·리종무(체육상)·박명선(인민봉사총국장) 등 참가下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진행(9.17, 중방)
  - 제8차 9월10일상 전국무도선수권대회(10여 개 단체 남녀 선수 참가), 9.17 태권도전당에서 진행(9.17,중방)
- 김영남·박봉주·최룡해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 등, 9.18 은하과학자거리 살림집에 입사한 세대들 방문(9.18,중통)
- 김영남·장정남·김원홍 등 黨과 정권기관, 9.19 추석계기 '김보현·리보익·김형직·강반석 묘'에 화환 진정(9.19,중통·중방)
  - 박봉주·최룡해 등 黨과 국가·군대 책임일꾼들, 9.19 추석계기 '대성산 혁명열사릉·애국열사릉·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 묘'에 화환 진정(9.19,중통·중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김보현·리보익·김형직·강반석 묘'와 '대성산 혁명열사릉·애국열사릉·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 묘'에 화환 보냄.
  - 인민군 장병들과 근로자·학생들, 9.19 추석계기 '각지의 열사들 동상과 열사릉·인민군열사 묘'에 화환 진정(9.19,중방)

나. 경제

- **北 해주시에 현대적 맥주공장 완공(9/19, 노동신문)**
  - 북한 황해남도 해주시에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맥주공장을 건설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9일 보도함.
  - 수 천㎡ 규모의 이 공장은 당화에서 발효, 여과, 병 포장에 이르는 모든 공정이 가능하고 냉동설비를 비롯한 현대적 설비들을 갖추고 있다고 신문은 전함.

- **北, 1년 만에 세포등판 5만 정보 목초지로 개간(9/20, 노동신문)**
  - 북한이 강원도 세포등판에 5만여 정보(1정보는 3천평)의 인공 목초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1년 만에 끝냈다고 노동신문이 20일 전함.
  - 신문은 '젊어지라 복 받은 대지여'란 제목의 정론에서 "세포등판에서 드디어 인공 풀판(목초지) 개간이 끝났다"며 "우리의 개척자들은 5만여 정보의 묵은 땅을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한꺼번에 정리했다"고 밝힘.

- **북한, 작년부터 농민 잉여 생산물 자유처분 허용(9/21, 도쿄신문)**
  - 북한이 농민이 목표를 초과한 잉여 수확분을 자유롭게 처분하도록 허용하는 농업개혁을 실시중이라고 도쿄신문이 21일 보도함.
  - 북한 조선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의 이기성 교수가 최근 북한을 방문한 일본 기자들에게 밝힘.

다. 군사

- **북한, 지난달 신형미사일 엔진 연소 실험(9/17, NHK)**
  - 북한이 최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용으로 추정되는 엔진의 연소실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NHK가 17일 보도함.
  - 방송은 북한이 지난달 말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서 며칠에 걸쳐 로켓 엔진 연소실험을 했음을 미국 등이 확인했다고 외교가 소식통을 인용해 전함.

라. 사회 · 문화

- **北 10년 만에 체신일꾼대회 개최…김정은 서한 전달(9/16, 조선중앙TV; 노동신문)**
  - 조선중앙TV는 16일 '전국 체신일꾼대회'가 평양에서 열렸다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체신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서한을 박봉주 내각총리가 전달했다고 전함.
  - 노동신문은 16일 4면 거의 전체를 할애해 '당의 현명한 영도 아래 끊임없이 비약하는 사회주의 체신'이란 제목으로 국제위성통신국과 광케이블 공장 등 체신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소개하는 기사를 여러 건 보도함.

- **북한서 선보인 4D영상관…개장 첫날부터 '인기몰이'(9/16, 평양방송)**
  - 북한의 대외용 라디오 방송인 평양방송은 지난 16일 평양에서 새로 문을 연 입체율동영화관을 소개하며 "입체율동영화는 가상세계의 3차원 입체영화를 율동의자(움직이는 의자)에 앉아 보면서 현실세계와 같은 즐거움과 긴장감을 느낄 수 있는 특색있는 영화"라고 설명함.
  - 영화관의 김성림 소장은 평양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원수님(김정은)께서 우리 영화관을 다녀가시고 나서 어제(15일) 하루에만 1천여 명의 인민과 청소년들이 우리 영화관을 찾아왔다"라며 아침부터 많은 주민이 영화관을 찾아왔다고 전함.

- **이베이, 북한 물품 5천여점 경매(9/17, 자유아시아방송(RFA))**
  - 세계 최대의 인터넷 경매 사이트인 이베이(eBay)에서 5천여 점의 다양한 북한 물건이 경매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전함.
  - 방송은 불과 2~3년 전까지만 해도 이베이에서 경매되던 북한 물건이 1천여 점 정도였던 것에 비해 거래량이 4~5배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했으며 이베이에서 거래되는 북한 물건 중 대부분은 화폐나 우표, 기념품 등으로 외국인들이 북한 방문 당시 샀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北, 평양에 골프연습장 문 열어(9/17,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17일 "풍치 수려한 평양 청춘거리의 서산(西山)에 골프연습장이 새로 꾸려져 이곳을 찾는 근로자들과 청년 학생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있다"고 골프연습장에 대해 소개함.

- **北 평양 아시아역도대회 폐막(9/17, 조선중앙방송)**
  - 북한 평양에서 열린 2013 아시안컵 및 아시아클럽 역도선수권대회가 17일 폐막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함.
  - 방송은 평양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우수한 경기 성적을 이룩한 단체들과 선수들에게 우승컵이 수여되고 꽃다발이 안겨졌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시상 내용은 밝히지 않음.

- **해외 北근로자 환경 최악…올 초 러시아서 5명 사망(9/20, 연합뉴스)**
  -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이 현지에서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해 사망자도 속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20일 전함.
  - 북한 사정에 정통한 서울의 한 소식통은 20일 "대부분의 해외파견 북한 근로자들은 작업 현장 인근에 위치한 냉난방도 없는 열악한 숙소에서 8~10명이 함께 거주하면서 비인간적인 생활을 강요받고 있다"고 말함.

- **WHO "北 장애인구 비율 3.4%…지체장애 가장 많아"(9/20, 미국의소리(VOA))**
  - 세계보건기구(WHO)가 북한의 장애인 비율을 전체 인구의 3.4%로 추

정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0일 전함.

– WHO는 최근 발표한 '2013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장애'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장애인 비율은 2007년 현재 전체 인구의 3.4%로 추정되며 이는 동남아시아 11개국 중 4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밝힘.

○ **北 관리, 네덜란드서 감자 연구로 박사 학위(9/21,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관리가 네덜란드의 대학에서 감자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전함.

– 네덜란드 바게닝겐대의 북한 사업 책임자인 마텐 용스마 박사는 북한 관리가 이 대학에 감자 역병의 통합관리에 관한 논문을 제출, 9월에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밝힘.

○ **'체육강국' 다짐 北, 비인기 종목 야구도 육성하나(9/21,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이 이달 20일부터 남포 야구경기장에서 청년선수권대회의 야구경기가 시작돼 30일까지 열린다고 전함.

– 이달 1일 북한 정권수립 65주년을 앞두고 개막한 이번 청년선수권대회에서는 야구 이외에 육상, 축구,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권투, 역도 등 다양한 종목의 경기가 치러짐.

■ **기타 (대내 사회 · 문화)**

- 전국 체신일꾼대회, 9.16 4.25문화회관에서 진행 및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는 '김정은 서한'('체신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 박봉주(내각총리)가 전달(9.16,중통·중방)
  • 박봉주·장정남·김기남·곽범기·주규창·문경덕·로두철·최부일·태종수·전승훈(내각부총리/보고) 등 참가

2. 대외관계

가. 일반

○ **北 "대화가 이란 핵문제 해결 방도"(9/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6일 '문제 해결의 방도는 대화뿐이다'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과 서방이 이란에 대한 적대시정책에 치중하고 있다며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이란의 핵 문제에 대한 압박을 강조했다고 비난함.

– 신문은 이어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평화적 해결에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며 "대화 만이 문제 해결의 방도라는 것을 최근 시기 이란 핵문제를 둘러싼 현실이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함.

北, IOC 총회 보도…'2020 도쿄 올림픽' 언급 없어(9/16, 평양방송)

- 평양방송이 16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125차 총회 소식을 전하면서도 2020년 올림픽 개최지로 일본 도쿄가 선정된 사실은 언급하지 않음.
- 방송은 "독일의 올림픽 금메달 수상자이며 IOC 부위원장인 토머스 바흐가 아홉 번째 IOC 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히고 "총회에서는 2020년 올림픽에 포함할 추가 종목 1개를 선정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며 "투표에 참가한 위원 95명 중 과반수인 49명이 레슬링 종목에 지지표를 던졌다"고 보도함.

유엔 北인권조사위, 북한 비협조 맹공(9/17, 연합뉴스)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17일(현지시간) 제24차 인권위 전체회의에서 중간 구두보고를 통해 북한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유엔 인권위 회의에서 보고를 통해 "COI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책임소재를 밝히라는 권한을 (인권위로부터) 위임받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지난 7월 조사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북한은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말함.

유엔 긴급구호기금, 올해 北 수해복구에 210만弗 지원(9/18, 미국의소리(VOA))

-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이 북한 수해 복구사업에 올해 210만 달러(약 23억 원)를 긴급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 보도함.
- 이는 CERF가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 배정한 92만 달러를 포함해 유엔아동기금(UNICEF · 62만 7천 달러), 세계식량계획(WFP · 42만 2천 달러), 유엔인구기금(UNFPA · 13만1천 달러) 등 유엔 산하기구들에 배정한 금액을 모두 합한 것임.

시리아 대통령, 北 김정은 축전에 답전 보내(9/18, 조선중앙방송)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게 보낸 생일 축전에 대해 아사드 대통령이 답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8일 보도함.
- 아사드 대통령은 답전에서 김 제1위원장의 축전에 대해 사의를 표시하고 "당신(김정은)과 당신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할 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조선 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을 것을 축원한다"고 밝힘.

중국, 북한 나진항 통한 남방항로 연장 추진(9/20, 연변인터넷방송)

- 중국이 동해의 북한 나진항을 이용하는 남방항로에 대해 노선 연장을 추진한다고 연변인터넷방송이 20일 전함.
- 방송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북한 나진항에서 상하이(上海), 닝보(寧波)

를 연결하는 남방항로를 내년 상반기에 푸젠성 취안저우(泉州), 광둥성 광저우(廣州)까지 연장할 계획임.

○ **북한, 외교관 등 자녀에 귀국 명령(9/20, 산케이(産經)신문)**

- 북한이 외교관을 비롯한 외국 체류자 자녀의 귀국을 명령했다고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이 20일 보도함.
- 신문은 재외공관이나 국외 무역기업 등에 근무하는 이들의 자녀를 1명만 남기고 이달 말까지 모두 북한으로 돌려보내라는 지시가 각국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통해 전달됐다고 중국에 머무는 북한 관계자를 인용해 전함.

○ **북한 나진-러시아 하산 철도 5년 개보수 후 재개통(9/2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함경북도 항구도시 나진과 러시아 극동지역 도시 하산을 연결하는 철도 선로가 5년간의 개보수를 거쳐 22일 개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나진-하산 철도 개건구간이 개통됨으로써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고 전함.

■ **기타 (대외 일반)**

- 北 김계관(외무성 제1부상) 일행, 9.16-20 중국측 초청으로 訪中 및 '양제츠(국무위원)·왕이(외교부장)·장예쑤이(외교부 상무부부장)·우다웨이(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쌍무관계와 조선반도정세, 6자회담 재개 등 토의" 보도(9.20,중통·평방)
  - 또한 중국측이 조직한 9.19공동성명 채택 8돌 기념 국제토론회에 참가하여 한반도와 東北亞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北)의 입장을 밝혔음.

나. 6자회담(북핵)

○ **北김계관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자"(종합3보)(9/18, 연합뉴스)**

- 북한의 핵 협상을 총괄하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비핵화 대화에 나설 뜻이 있음을 거듭 밝히면서도 한국, 미국, 일본이 요구하는 비핵화 사전 조치는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고 연합뉴스가 18일 전함.
- 그는 중국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소가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개최한 1.5트랙(반관반민) 형식의 '6자회담 10주년 기념 국제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화에 전제 조건을 다는 것은 불신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대화를 하자는 것"이라고 밝힘.
- 또한 "대화가 재개되기도 전에 우리보고 먼저 움직이라는 것은 9.19 공동성명 합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 부당한 요구"라며 "우리는 누차 천명한

대로 대화 재개를 지지하고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지만 절대로 구걸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 **北-짐바브웨, 무기-우라늄 거래 협정(9/20, 미국의소리(VOA); 네한다 라디오)**
  - 북한과 짐바브웨가 2009년 무기와 우라늄을 거래하는 비밀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짐바브웨 현지 매체인 '네한다 라디오'를 인용해 20일 전함.
  - 짐바브웨의 뉴스 전문 인터넷 방송인 '네한다 라디오'는 지난 17일 짐바브웨군 장교를 인용해 북한이 짐바브웨에 무기를 공급하는 대가로 짐바브웨의 우라늄 광산을 개발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보도함.

- **北, 평화체제 구축 준비 이미 갖췄다(9/20, 조선신보)**
  -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20일 북한이 "냉전시대의 유물인 대결구도의 청산과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준비를 이미 갖췄다고 밝힘.
  - 신보는 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지난 18일 베이징 '6자회담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한 "6자회담 안에서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논의할 수 있다"라는 발언은 "북한이 과감한 평화조치를 구상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함.

- **北, 김계관 중국 방문 뒤늦게 보도(9/20,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등이 중국을 방문했던 소식을 보도함.
  - 통신은 "중국 측의 초청에 의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일행이 16일부터 20일까지 중국을 방문했다"라며 방중기간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왕이 외교부장, 장예쑤이 외교부 상무부부장,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 등을 각각 만나 한반도정세와 6자회담 재개 등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깊이있게 논의했다고 밝힘.

3. 대남동향

가. 정치 · 군사

- **北 "개성공단 재가동 · 이산상봉은 남북관계의 결실"(9/1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우리의 평화의지는 확고하다' 제목의 논평에서 "조국통일을 무력행사나 전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 등 평화적 방법으로 이룩하자는 것이 조국통일에 관한 우리의 일관한 주장"이라며 개성공단 재가동과 이산가족 상봉사업 등을 거론하며 "북남관계에서 모처럼 일련의 결실이 이룩되고 있다"고 평가함.

– 통신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고 평화적 환경에서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으로 자주적 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현실은 이를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임.

北, 김관진 장관 비난…"도발적 발언, 긴장완화 역행"(9/18,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8일 김관진 국방장관이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거론한 데 대해 "조선반도의 긴장완화를 지향하는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망동"이라고 비난함.

– 중앙통신은 논평에서 최근 북한의 '주동적이고도 성의있는 노력'으로 남북관계 개선 조짐이 보인다며 "바로 이러한 때에 김관진이 안팎을 돌아치며 동족을 헐뜯는 데 여념이 없는 것은 북남 사이에 조성된 화해의 분위기를 깨고 또다시 대결 국면을 몰아오려는 행위로 밖에 달리 볼 수 없다"고 주장함.

나. 경제·사회·문화

남북, 내달 31일 개성공단 공동 투자설명회 개최(9/16, 연합뉴스)

– 남북은 16일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내달 31일 개성공단에서 공동 투자설명회를 개최키로 합의하고 개성공단 공동위 사무처 개소를 위한 실무협의를 24일 열기로 하는 한편 다음주 중에 통행·통신·통관(3통) 및 출입체류 분과위를 열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16일 보도함.

– 남북은 회의에서 북측 지역에서의 위법행위 발생 시 입회조사, 조사과정에서의 기본권 보장 등 이른바 '법률조력권' 문제를 계속 논의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함.

개성공단 생산가동률 56%로 증가…완전정상화 박차(9/17, 연합뉴스)

– 개성공단 재가동 이틀째인 17일 입주기업들은 생산가동률을 높이며 공단의 완전 정상화에 박차를 가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홍양호 개성공단 관리위원장은 17일 개성공단에서 남측 공동취재단을 상대로 브리핑을 갖고 "입주기업들의 생산 가동률은 16일 53%에서 오늘 56%로 높아졌다"면서 "약 55~60% 수준으로 보면 된다"고 말함.

남북 민간단체, 개천절 행사 평양서 공동 개최 추진(9/17, 연합뉴스)

– 남북 민간단체들이 올해 개천절 기념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17일 전함.

–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는 지난 14~15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瀋陽)에서 북측 단군민족통일협의회와 실무회담을 하고 올해 개천절 행사를 평양에서 공동개최키로 합의했으며 양측은 내달 3일 단군릉에서 단군을 모시는 제사를 지내고 기념공연을 할 예정이라고 뉴스는 전함.

○ **北, 이산가족 상봉 연기 발표…"南이 대결소동" 비난(종합2보)(9/21, 연합뉴스)**

– 북한이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나흘 앞둔 21일 갑자기 상봉행사를 연기하며 우리 정부가 내달 2일로 제안한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도 연기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대변인 성명에서 우리 정부가 남북대화를 동족대결에 악용하고 있다며 "북남 사이의 당면한 일정에 올라있는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행사를 대화와 협상이 진행될수 있는 정상적인 분위기가 마련될 때까지 연기한다"고 밝힘.

○ **北 조평통 "南이 반인륜적…남북관계 南태도에 달려"(9/2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2일 서기국 보도를 통해 북측의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 연기는 "괴뢰패당의 극악한 동족 대결 책동의 산물로서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남조선 보수패당에 있다"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조평통은 통일부가 전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연기에 대해 "반인륜적 행위"라며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우리에 대한 반감과 악의를 선동해 북남관계 개선의 흐름을 차단하려는 반민족적 기도의 발로"라고 반박함.

○ **北통신 "南 보수언론이 최고존엄 모략…대가 치를 것"(9/2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국내 일부 언론의 북한 관련 보도가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고 비난하며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전함.

– 통신은 논평에서 남측이 "어용 매체들을 통해 감히 우리의 최고 존엄을 비방중상하는 모략적 악담질을 꺼리낌없이 해대고 있다"며 "용납할 수 없는 특대형 도발"이자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라고 주장함.

– 또한 국내 일부 언론이 일본 아사히(朝日) 신문을 인용해 북한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와 관련된 추문을 은폐하기 위해 9명이 처형됐다고 보도한 기사 등을 문제 삼음.

■ **기타 (대남)**

- 남북공동위원회 2차 회의 합의내용(9.16부터 개성공단 재가동)과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거론하며 "북남관계에서 모처럼 일련의 결실이 이룩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이행 촉구(9.16,중통)

- '2013 아시안컵 및 아시아클럽 역도선수권대회' 南 원정식(69kg)·임희창(85kg) 1위 등 5일차 경기(남자 69kg급·77kg급·85kg급) 결과 보도(9.16,중통)

● 북한연구센터 제공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윤병세, 내주 美·中외교장관과 회담…북핵대응 논의〉(9/17, 연합뉴스)**

– 유엔총회 기조연설(27일)차 미국을 방문하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각각 양자회담을 할 예정인 것으로 17일 확인됐음.

– 회담이 개최되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는 것과 관련된 대응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임. 한미 양국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사실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 윤 장관은 또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미측과의 협의를 토대로 중국에 추가적인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관측됨. 비핵화 대화가 성공하려면 대화의 목적인 북한 비핵화에 북한이 명시적으로 동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됨.

○ **〈"북한, 지난달 신형미사일 엔진 연소 실험"〈NHK〉〉(9/17, 연합뉴스)**

– 일본의 NH방송은 17일 북한이 지난달 말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서 며칠에 걸쳐 로켓 엔진 연소실험을 했음을 미국 등이 확인했다고 외교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음.

– 방송은 북한이 최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용으로 추정되는 엔진의 연소실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면서, 실험에 사용된 엔진은 대형이고 올해 7월 북한이 군사 행진에서 공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음.

– 또 북한이 핵 문제를 둘러싸고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대화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NHK는 덧붙였음.

○ **〈北리용호 "6자회담서 모든 것 논의할 수 있다"〉(9/18, 연합뉴스)**

– 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은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북한은 6자 회담 안에서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중국 측이 전했음.

– 그러나 이번 6자회담 세미나를 주최한 취싱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은 6자회담을 재개하는 데 있어서 북한이 일단 한국과 미국 등이 요구하는 '전제조건'을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참가자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밝혔음.

○ 〈러시아 메드베데프 총리 "북핵 국제통제 받아야"〉(9/20, 연합뉴스)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1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15차 아시아 · 태평양지역 뉴스통신사기구(OANA) 총회 참석자들을 환담하는 자리에서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자 지역 강국으로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원하고 군사적 대결을 원치 않는다"며 "(북한) 핵무기도 국제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음.

– 그는 이어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 러시아 가스를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북한 경유 가스관 부설과 같은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한반도 상황 안정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음.

○ 〈왕이 "6자회담 재개, 美와 합의도출 자신"〉(9/20, 연합뉴스)

–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을 만나 미 · 중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동북아의 평화 ·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중미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고 주장했음.

– 그는 또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6자회담을 어떻게 재개할지, 비핵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추진할지에 대해 미국과 새롭고 중요한 합의를 도출할 자신이 있다"고 밝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모종의 방안을 마련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음.

나. 미 · 북 관계

○ 〈美 '인신매매 방지미흡' 제재 대상에 북한 재지정〉(9/18,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인신매매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 부족을 이유로 북한 등을 지원 금지 대상 국가로 재지정했음.

– 북한은 콩고민주공화국, 적도기니, 이란, 수단, 짐바브웨, 쿠바, 시리아 등과 함께 미국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에 따른 연방정부의 2014회계연도 특정자금 지원 금지 대상에 포함됐음.

– 한편,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은 인신매매 피해방지 노력이 부족한 국가에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나 통상 관련 자금 거래를 제외한 다른 대외 원조자금 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은 미국이나 국제기구로부터 이미 각종 제재를 받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는 없음.

○ 〈美, 北 대화요구 일축…"비핵화 사전조치 우선"〉(9/19,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18일(현지시간)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사전 조처를 해야 북핵 6자회담 등 대화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음. 이는 전제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라는 북한 측의 주장을 일축한 것임.

– 국무부는 또 "미국은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협상을 지속적

으로 약속했다"면서 "이는 북한이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고, 비핵화를 위한 불가역적 조치를 통해 유엔 안전보상이사회의 결의안을 준수하도록 하는 협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음.

○ 〈美 재무부 "北, 돈세탁 위험국가" 주의보〉(9/20, 연합뉴스)

-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지난 17일 '돈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차단과 관련한 주의보'를 통해 북한을 이란과 함께 돈을 세탁하고 테러 자금을 지원하는 가장 위험한 국가로 분류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보도했음.
- '주의보'는 북한과 이란이 돈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차단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의 모든 금융기관이 북한과 이란의 '금융 위협'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음.
- 한편, 미 재무부의 이날 발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금융활동대책반(FATF)이 지난 7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과 이란을 돈세탁 및 테러 자금 지원 위험 국가로 지목한 성명서에 기초한 것임.

다. 중·북 관계

○ 〈北·中, 이구동성 '6자회담' 촉구…'공조모드' 재연〉(9/20, 연합뉴스)

- 북한당국이 '6자회담' 10주년을 맞아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반관반민 형태의 세미나에서 보여준 비핵화에 대한 태도는 다수 전문가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
- 북한은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들게 된 것은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이 북한의 비핵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다른 약속은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난하면서, 대화를 원한다면 '전제조건'은 달지 말라고 못박았음.
- 특히, 중국과 북한은 이 자리에서 한국, 미국 등을 향해 이구동성으로 조속한 '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모습을 연출, 또다시 양측이 '공조모드'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음.

라. 일·북 관계

○ 〈"日, 북한미사일 대비 '高고도방어체계' 도입 검토"〉(9/17, 연합뉴스)

- 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개발과 관련,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강화를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7일 보도했음.
- 방위성은 MD시스템 강화 방안으로 미군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도입 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2014년도 예산 요구안에 처음으로 관련 조사비도 포함시켰음.
- 현재 일본의 MD시스템은 일단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이 바다에서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을 발사, 대기권 밖에서 요격하고 여기서 놓칠 경우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미사일(PAC3)을 지상에서 발사하는 2단계 태세로 돼 있음.

○ 〈"일본인 납치 지휘 北공작원 사망"〉(9/17, 연합뉴스)

- 일본인 납치를 실무적으로 지휘한 혐의로 일본 정부가 신병인도를 요구해온 북한 공작원 김세호씨가 이미 사망했다는 납북 피해자들의 진술이 나왔음.
- 납북됐다가 2002년 귀국한 복수의 일본인 납치 피해자들이 경시청 참고인 조사때 김씨가 1999년 사망했다는 증언을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7일 보도했음.
-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조기 귀국과 함께 납치 실행범의 신병인도를 북한에 요구하고 있지만 김씨가 사망한 것이 사실이라면 일본인 납치 문제의 진상규명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고 산케이는 보도했음.

마. 기 타

○ 〈미 국무부 "버마에 대북제재 결의 준수 계속 압박"〉(9/20, 미국의소리)

- 미국은 버마 정부 당국자들에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를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음.
-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의 한 관리는 버마가 최근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안전협정 추가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북한과의 핵 협력 의혹 규명에 진전이 이뤄질지 여부를 묻는 'VOA'의 질문에 18일 이같이 답했음.
- 이 관리는 버마의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이행 관련 논의가 미국 정부 최고위급에서 진행돼 왔다고 덧붙였으나 버마의 추가의정서 서명은 이와는 별개 사안이라고 지적했음.

○ 〈미 의회 보고서 "오바마 대북정책 효과 의문"〉(9/20, 미국의소리)

-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펴낸 '북한: 대미 관계와 핵 외교, 내부 상황'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개정판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 정책을 유지에 의문을 표했음.
- 보고서는 올해 초 북한의 핵실험과 전쟁 위협으로 고조됐던 긴장 상황이 누그러졌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폐기와 군축에 반드시 동의해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음.
-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북한과 좀더 교섭을 추진할 경우 대북정책에서 미국과 한국 사이에 틈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음. 보고서는 또 미국이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 · 미 관계

○ **〈한미, 25-26일 워싱턴서 방위비분담 4차 협상〉(9/17,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은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고위급 협의를 25~26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17일 밝혔음.
- 한국측에서는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를 비롯한 외교부, 국방부, 청와대 관계관이, 미국측에서는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를 비롯한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관이 참석할 예정임.
- 한편,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3차 고위급 협의에서는 제도적 차원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다른 용처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우리측 방안에 미측이 큰 이견을 보였으며,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두고서도 양측 견해차가 여전한 상태임.

○ **〈美하원, 한미원자력협정 연장안 만장일치로 통과〉(9/18, 연합뉴스)**

- 미국 하원은 한 · 미 양국 정부가 내년 3월 19일인 이 협정의 시한을 2016년 3월로 늦추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입법절차로 17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한 · 미 원자력협정의 만기를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음.
- 당초 원자력협정 본안의 쟁점들과 맞물려 논란이 점쳐졌던 이번 연장안이 만장일치로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상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개정안(H.R. 2449)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한 · 미 간 '평화적인 원자력 사용에 관한 협력 협정'(원자력협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로, 에드 로이스(공화 · 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것임.

○ **〈美항공정찰대 평택배치…"亞太 첫 지상군 순환배치"〉(9/19, 연합뉴스)**

- 미군이 아시아태평양지역 전력 강화의 일환으로 무장정찰헬기 OH-58D 카이오와 워리어 30대로 구성된 육군 항공정찰 부대를 다음주 평택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한다고 18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음.
- 미 육군측은 이메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정찰부대 순환배치에 대해 한 · 미 상호 방위조약과 양국 대통령간 합의 등에 명시된 미국의 한국 방어역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음.
- 한편, 미 육군 제7보병사단의 스티븐 란자 사령관(소장)은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과 주한미군은 이번 순환부대 배치에 고무돼 있다"면서 "이들을 한국에 파견하는 것은 전략적인 함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음.

나. 한 · 중 관계

- **〈한중 외교부 동북아국장 회의…정상회담 후속협의〉(9/16, 연합뉴스)**
  - 한 · 중 양국 외교부는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동북아국장회의를 갖고 6월 정상회담 논의사항에 대한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음.
  - 박준용 동북아국장은 뤄자오후이 아주국장과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지적된 양국간 고위급 교류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경제협력 및 인문교류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음.
  - 박 국장은 또 탈북자 문제에 대한 중국측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중 · 일간 외교갈등 등의 이유로 개최가 지연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음.

다. 한 · 일 관계

- **〈정부, 내주 유엔총회서 '위안부 문제' 거론 적극검토〉(9/16,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정부 대표로 2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총회 기조연설을 할 예정인 가운데,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언급하는 방향으로 외교부가 내부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 정부 고위소식통은 16일 "여러 정황상 위안부 문제도 연설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러나 실제 발언 내용은 연설 때까지의 상황을 모두 다 고려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음.
  - 만약 정부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면 이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가 됨.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를 우회적으로 거론했음.

- **〈日, 우리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자료' 추가제공〉(9/16,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 유출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요청 자료를 추가로 제공했음.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16일 "일본이 최근 우리측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추가 답변을 보내왔다"면서 "일단 우리가 지난달 요청한 자료는 대부분 다 온 것 같다"고 말했음.
  - 외교부는 국내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난달 19일 일본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 유출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했음.
  - 한편,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자료 분석결과 현재까지는 일본측 제공자료가 일본 정부가 대외적으로 밝힌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관련, 고위당국자는 "시시각각 변하는 일본의 상황과 우리측에 온 자료 사이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음.

라. 미 · 중 관계

○ **〈케리 미 국무, 북핵·시리아 문제 논의위해 중국과 회동〉(9/16, 로이터)**

-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화요일 오찬회동을 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날 것이라고 미 국무부가 월요일 밝혔음.
- 미 국무부 마리 하프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담이 미리 계획된 것이기는 하지만 두 장관이 북핵문제나 시리아 등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음.
- 한편, 앞서 중국은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하는 협상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에 도달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한 바 있음.

○ **〈中, 美에 6자회담 조기 재개 노력 촉구〉(9/16, 연합뉴스)**

- 중국이 최근 베이징을 찾은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게 6자회담 조기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음.
-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셀 차관보가 13~14일 방중해 왕이 외교부장, 장예쑤이 상무부부장, 류전민 부부장, 정쩌광 부장조리(차관보) 등을 만났다고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음.
- 홍 대변인은 러셀 차관보의 방중 기간 양국이 새로운 대국 관계 건설 및 중대 국제 · 지역 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포괄적으로 소개하면서 유독 북핵문제 논의 상황만을 별도로 설명했음.

마. 미 · 일 관계

○ **〈美, 케네디…미일관계 강화 결의(종합)〉(9/20, 교도통신)**

- 오바마 미 대통령이 차기 주일 대사로 지명한 캐롤라인 케네디(55)의 인사 승인을 둘러싼 상원 외교위원회 공청회가 19일, 개최됐음.
- 케네디는 "일본은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이다. 일본과의 동맹은 평화와 안정의 초석이다"고 밝힌 뒤 "일본이야말로 내가 봉사할 곳이다"고 증언하고 미일 관계 강화에 대한 결의를 나타냈음.
- 그는 또 "미일 양국 간의 안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군 중추와 긴밀하게 연계해 나간다"고 표명했음. 오바마 정권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는 환태평양경제연계협정(TPP)에 진력해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의연하게 대응할 의향도 밝혔음.

바. 미 · 러 관계

○ **〈러시아-미국, 원자력 분야 협력 협정 체결〉(9/17, 연합뉴스)**

-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원자력 공사 '로스아톰'과 미국 에너지부는 16일(현지시간) 원자력 및 에너지 분야 연구와 개발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음.
- 세르게이 키리옌코 로스아톰 사장과 어니스트 모니스 미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장에서 만

나 이같이 합의하고 관련 협정에 서명했음.

- 협정서는 원자력 에너지 안전성 확보, 핵연료 폐기물 처리, 원자력 기술의 의료 분야 응용 등에 걸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사. 중 · 일 관계

○ 〈"日, 中무인기 영공 접근시 격추도 검토"〉(9/17, 연합뉴스)

- 최근 중국 무인항공기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에서 비행한 사실이 처음 확인된 가운데, 일본 방위 당국은 향후 외국 무인기가 영공으로 접근하는 경우 격추하는 방안을 대응책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NHK가 17일 보도했음.
- 아울러 일본 방위성은 이전부터 중국 무인기가 센카쿠 열도가 있는 동중국해에서 비행훈련을 실시해온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향후 유사 상황의 재발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NHK는 소개했음.
- 앞서 지난 9일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센카쿠 열도 부근을 비행한 사실을 일본 방위 당국이 공개하자 중국은 자국기라고 인정하면서 "통상적인 훈련중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음.

○ 〈"日, 센카쿠방위 전문 수륙양용부대 신설"〉(9/18,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등 낙도 방위를 담당할 3천명 규모의 전문부대(가칭 수륙양용단)를 이르면 2015년 육상자위대에 신설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음.
- 적의 침공을 받은 낙도를 탈환하는 미국 해병대 기능과 유사한 전력을 도입, 일본의 취약한 낙도 방위를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우선 내년에 30명 정도의 '수륙양용준비대'를 설치할 예정임.
- 이와 관련, 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지난 6월 미국 서부해안의 샌디에이고 앞바다에서 중국의 센카쿠 상륙을 상정한 대규모 낙도 방어 공동 훈련을 실시했음.

○ 〈중국 해경선 2척, 센카쿠 해역 진입〉(9/19, 연합뉴스)

- 중국 해경국 소속 선박 2척이 19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 해역에 진입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중국 해경국 소속 '해경 2350'과 '해경 2506' 등 2척은 이날 오전 7시10분께 일본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센카쿠 열도 12해리(22㎞) 해역에 진입, 약 2시간 항해한 뒤 귀환했음.
- 한편, 중국과의 영유권 갈등 속에 센카쿠를 실효지배 중인 일본의 외무성은 주일 중국대사관에 전화로 항의했음.

○ 〈中해군, 해상 가스전 보호 훈련〉(9/20, 연합뉴스)

- 중국 해군 동해함대 소속 호위함 원저우함이 해상 가스전 보호 훈련을

했다고 중국 해군이 20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음. 원저우함은 가스전 인근 해상 순찰과 임검 및 나포 훈련 등을 진행했음.

- 동해함대가 동중국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이번 훈련이 일본과 개발권 분쟁이 있는 춘샤오(일본명: 시라카바) 가스전에서 진행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됨.
- 한편, 중국과 일본은 2008년 6월 중국이 추진해온 춘샤오 가스전 개발 사업에 일본 기업이 참여하도록 합의한바 있으나, 이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 분쟁 등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음.

아. 기 타

〈미국 · 필리핀, 남중국해 분쟁해역 부근서 합동훈련〉(9/17, 연합뉴스)

- 남중국해 일부 도서를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분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필리핀이 분쟁도서 인근에서 연례 합동 상륙훈련을 실시한다고 필리핀 언론과 외신들이 17일 보도했음.
- 이번 훈련은 특히 필리핀과 중국이 스카보러 섬(중국명: 황옌다오) 등 남중국해 일부 도서를 둘러싸고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실시되는 것이어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됨.
- 한편, 필리핀은 중국이 최근 이곳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 실효지배를 강화하고 있다며 맹렬히 비난하고 있음. 미국 대사관 측은 이 기간에 작전기획훈련도 실시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양측의 해양안보 협력과 작전수행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음.

〈"日자위대, 지구 반대편까지 출동할 수도"〉(9/20, 연합뉴스)

- 일본 아베 정권에서 안보정책과 위기관리를 담당하는 다카미자와 노부시게 관방부장관보는 집단적 자위권이 인정될 경우 자위대 활동 범위가 지구 반대편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 2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카미자와 부장관보는 19일 자민당 안보관계 합동회의에서 "일본의 방위를 감안할 때 지구 반대편이라고 해서 (일본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음.
- 이는 현행 헌법 해석상 금지돼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인정되면 자위대가 일본 주변 이외 지역에까지 출동해 무력행사를 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임.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